

論 說

## ‘바다의 날’ 제정 제안

趙 德 雲\*

### Proposal to Institute the Ocean Day

*D. W. Cho*

Key Word : 바다의 날(Ocean Day), 청해진(Chunghaejin), 장보고(Changbogo), 해양스포츠(Marine Sports), 평화선(Peace line), 조석관측(Tide Observation)

#### Abstract

Although Korea has had a proud maritime history of thousands of years marked by outstanding leaders such as Chang Bogo and Yi Soon-shin, there has not been a unified ‘Ocean Day’ like the one in Japan. Extensive historical survey revealed eight candidate days for ocean day designation. Historical significance, seasonal consideration and other factors were examined with respect to each candidate date. Of the eight events the establishment of Chunghaejin maritime base on the island of Wando on the southern coast of Korea by Admiral Changbogo in the lunar month of April in the year of 828 is judged to have the greatest desirability. Institution of ‘Ocean Day’ is recommended with the date to celebrate as May 20(a convenient date of May as translated into solar month). A weeklong celebration throughout the country is also recommended with colorful events to be had over the Ocean Week following the Ocean Day.

#### 1. 서 론

우리나라는 9천여년의 기록된 역사를 지녔으며 그동안 한반도 및 중국 북부와 만주를 중심으로 활동해 오면서 필연적으로 황해, 동해 그리고 동지나해 등의 광범위한 해역에서 해상활동을 하여 왔다. 과거 선조의 활달한 기상이 이조 이후 많이

위축되었다가 국권을 침탈당하는 오욕의 기간을 겪은 후 해방된지 이제 거의 반세기가 흘렀다. 반도에 정착한 우리 민족에게 바다는 배수진이 되어서는 아니되며 활동 무대이어야 한다. 근자에 들어 우리의 창의적 노력이 바다를 통해 해외로 뻗고 있음은 선조의 전통이 다행히 끊기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 定會員, 해군 대령, 해군본부 정책분석처장

필자는 본 소고를 통하여 '바다의 날'을 제정할 것을 촉구하려 한다. 바다의 날 제정을 통하여 바다와 관계되는 해운, 수산, 해군, 해경, 조선, 해양연구 등 모든 분야에서 공동으로 기념 행사들을 전개함으로써 국민에게 바다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해양 활동의 증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서 해양민족으로서 모든 해양인이 뭉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무엇보다 자라나는 2세들에게 해양사상을 고취시켜 우리 민족의 해양 전통을 이어 나가도록 교육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 2. 海洋 關聯 現存 紀念日

우리나라에서 바다와 관계하여 기념되고 있는 현존 기념일을 살펴보면 다음 표 1과 같다. 이 날들은 소관부서와 직접 관련된 의미에 국한하여 행사 규모도 제한된 관주도의 소규모 형태로서 바다와 관련된 모든 기관과 사람들이 함께 큰 축제로서 기념하고 바다의 중요성을 폭넓게 홍보할 수 있는 공통적 기념일의 제정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표 1〉 해양 관련 현존 기념일

기 념 일	일 자	제 정 근 거	주 관
해 운 의 날	3. 13	해운 항만청 개청	해 운 항 만 청
해 군 의 날	11. 11	海防兵團 창설	해 군
충 무 공 탄 신 일	4. 28	충무공 탄신 기념	문 화 부
한산대첩기념일	8. 14	한산대첩 전승 기념	충 무 시
각 종 풍 어 제		지역별 풍어 기원	지 방 어 민 단 체

이웃나라 일본의 경우에는 '바다 기념일'을 1941년 6월에 매년 7월 20일로 제정하여 전국 각지에서 기념식과 바다 관련 행사를 거행해 오고 있다. 바다 기념일 제정의 목적은 해양 및 해사 사상을 보급하여 일본의 해양국가로서의 발전에 기여하기 이한 것이었다. 7월 20일은 일본의 명 치천황이 1876년 일본 동북지방을 순시한 후 귀 로에 등대 시찰선 '明治丸'으로 오오모리에서 하 꼬다테를 경유하여 요코하마에 안착한 날을 기념 하기 위한 의미를 갖고 선정되었다. 더욱이 1973년 부터는 '바다의 旬間'으로서 매년 7월 20일 부터 7월 31일 까지 운수성을 중심으로 모든 해양관계 단체들과 지방자치단체들이 협력하여 전국적인 규모로 각종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광범위한 국민의 인식을 촉진시키고 있다.

1986년 부터는 '바다의 旬間'의 중심 행사로서 전국의 주요 항만에 걸쳐 '바다의 祭典'을 실시 하고 있는 바, 이는 '바다의 기념일' 제정 50주년을 1991년에 맞게 되어 이에 앞서서 제1회 바다 제전은 '86년에 북규슈시에서, 제2회는 '87년에 고

오베시에서, 제3회는 '88년에 나고야시에서, '89년의 제4회 바다 제전은 요코하마 박람회와 더불어 요코하마에서 7월 16일 부터 30일 까지 개최되었다. 제5회 바다의 제전은 '91년 바다의 기념일 50회를 맞아 동경도에서 성대하게 거행되었다. 일본 '바다의 순간'에 행해지는 주요 행사는 표 2와 같이 다양하며 '바다의 순간'에 협력하는 관계 단체도 매우 다양한 기관과 사회단체들이 포함되어 있다.

## 3. 대상 일자 검토

'바다의 날' 선정에는 무엇보다 대부분 해양인이 공감할 수 있는 역사적 의의가 중요하다. 또한, 가능하면 바다행사가 가능한 계절이 바람직할 것이다. 따라서 먼저 우리 역사에 걸쳐서 바다와 관련된 주요 사건을 문헌조사를 통해 파악하고 이중 가장 오래되고 역사적 의미가 큰 날자를 계절 고려하여 선정함이 바람직하다.

〈표 2〉 일본 「바다의 旬間」 주요행사('90. 7. 20~7. 31)

실시행사등	일시	장소
(1) 「바다의 기념일」 기념식전 및 축하파티	7. 20	뉴오파니호텔
(2) 「외항해운현황」 등의 발표	기간중	동경 등
(3) 「바다의 순간」 「바다의 개념일」 「바다와 수면을 깨끗하게 하는 캠페인」의 포스타 및 「바다의 순간」 슬로건의 자막표시	7. 10-7. 31	전국각지
(4) TV, 라디오, 주간지 등 매스컴에 의한 홍보 -바다의 특집	기간중	
(5) '89 미스 마루레이나(바다의 공주)에 의한 홍보 -캠페인 걸 3명이 TV, 라디오, 주간지, 각종 이벤트 등에 출현	5월-8월중순	
(6) 바다의 축전 -기념식전 축하파티	7. 16-7. 30	요코하마
(7) Marine 콘서트(요코하마) -인기가수에 의한 바다의 노래를 중심으로 한 음악회	7. 24-8. 5	요코하마박람회홀
(8) 순시선 등에 의한 해상 퍼레이드 해양소년단 등에 의한 가두퍼레이드	기간중	전국각지
(9) 바다의 방염 퍼레이드 -헬기, 배에 의한 해난구조연습 등	7. 23	동경만 해상공원
(10) 요코하마 야마시타 공원 해상축제	7. 30	요코하마 야마시타공원
(11) Marine Week -국민학생,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모타 보오트 승선회	7. 24-31	전국 65개소 해상
(12) 보오트 천국 -항만내 보오트 Sailing	7. 23-	동경, 요코하마, 나고야, 오사카 등
(13) 순시선, 요트, 모터보오트 등의 체험승선	기간중	전국각지
(14) Marine Sport 대회 등 -마오하리 레이스 -B & C 해양스포츠 보급대회 -해양소년단 전국대회	7. 28-	아오내 및 전국각지
(15) 보오트 Sailing, Surfing 등의 안전 강습회	기간중	전국각지
(16) 일본주변 크로스경기	7. 10-19	동경, 구레강, 하네다, 나나미
(17) B & G 「소년의 배」 -중·고등생 해외체험 향해	7. 22-8. 7	동경, 괘
(18) Marine Forum -교원을 대상으로 한 체험 향해와 선상세미나	8. 24-26	요코하마, 오봉항
(19) 순회 영화회, 강연회, 좌담회, 저명인사에 의한 일일선장, 향해장	기간중	전국각지
(20) 바다의 그림대회	〃	〃
(21) 연구소 등의 일반공연	〃	〃
(22) 바다와 해수면을 청결히 하는 캠페인	〃	〃
(23) 해상 안전지도, 해상 화재교실, 바다의 상담실, 선원무료 건강진단 등	〃	〃
(24) 기적의 일제 합창 -7. 20일 정오를 기하여 함내 정박선에 의한 일제기적	7. 20	〃
(25) T셔츠, 수첩, 지갑 그림엽서 등의 배포		전국 행사장

### 3.1 우리 해양사의 주요 사건

#### (1) “船府署” 설치(신라 진평왕 6년 음력 정월)

우리 역사상 공식 기록으로는 처음으로 배를 만드는 기관인 선부서를 설치한 일로 삼국사기에 기록되어 있다.

#### (2) 눌지왕 동생 구출(신라 눌지왕 연도 미상, 음력 5월 15일)

신라 눌지왕의 동생이 고구려와 일본에 각각 인질로 잡혀 있었던 바 충신 ‘재상’이 자원하여 고구려에 가서 구출하여 바다를 통해 5월 15일에 배를 고성 해안에 대어 모셔왔던 사실은 삼국유사에 기록되어 있다.

#### (3) 張保臯 大使 淸海鎮 設立(828년 음력 4월)

일찌기 당나라 徐州에 건너가 무령군 소장이 되었던 장보고 장군이 신라에서 잡혀와 노예가 된 동포들의 참경을 보고 분개하여 중국 벼슬을 버리고 귀국하여, 신라 흥덕왕에게 해적 근절을 위한 군영 설치를 요청한 결과 청해진 대사로 임명받아 군사 1만명을 이끌고 중국과 일본과의 해로 요충지인 淸海(완도)에 鎮을 설립하고 성을 쌓아 항만을 보수하고 해상 전략적 거점을 마련하였다. 청해진을 중심으로 하여 한반도 주변의 해상권을 장악한 장보고 대사는 당시 성행했던 해적을 소탕하고 신라-당-일본의 삼각무역을 독점하여 우리 역사상 가장 활발한 해상활동을 전개하였다.

#### (4) 玉浦海戰(1592. 6. 17)

선조 25년 음력 5월 거제도 옥포 앞바다에서 이순신의 함대가 일본함대를 무찌른 해전으로 임진왜란 발생 후 첫 해전 승리이다. 옥포항으로 침투한 적선 50여척을 포위하고 화통으로 공격한 결과 26척을 불태웠고 남은 적선은 포위를 벗어나 상륙하여 육지로 도망하였으며 이순신은 그중 응천 함포로 도주하는 적선 5척을 추격하여 전멸시켰다. 이 해전 승리는 우리 수군의 남해안 제해권 장악의 최초 계기가 되었다.

#### (5) 한산대첩(1592. 8. 14)

이순신 제독은 일본 수군의 주 세력을 한산도 앞바다로 유인하여 학익진형으로 공격함으로써 총각선 7척, 대선 28척, 중선 17척, 소선 7척 등을 격파한 대승을 거두었음. 이 싸움은 임진란 3대첩의 하나로 그 결과 일본 수군의 주역이 파괴되고 우리 수군이 남해안 전역에 걸쳐 제해권을 장악하게 되었다.

#### (6) 부산항 개항(1876. 2. 26)

고종 13년에 대한제국과 일본간에 일본의 강압에 의해 맺어진 강화도 조약에 의해 부산항을 개항하고 근세에 들어 최초로 외국과 바다를 통한 공식 교류를 시작한 사건이다.

#### (7) 평화선 선언(1952. 1. 18)

한국의 주권이 미치는 수역 범위를 정부 임의로 규정하여 선언하였으며, 이 선은 해양주권선 또는 ‘이승만 라인’으로 불리웠다. 그 설정 목적은 한국 수역내의 해산물 보호, 관리, 이용에 있었으며 공해상의 자유 항해권을 방해하는 것은 아니었다. 이 선은 1978년 12해리 영해 선포로 무효화되었다.

#### (8) 조석 관측(1951. 8. 4)

수산청에서 정부 수립이후 처음으로 진행한 내의 해양 기초조사인 조석관측을 시작한 날이다.

‘바다의 날’ 후보 일자를 찾기 위해 해방후 1982년 까지 우리나라의 해양 관련 주요사건들을 정리해 보면 <표 3>과 같다. 앞서 강조한 바와 같이 되도록 깊은 역사성이 중요한 이유로 근세의 사건들은 선정순위상 옛 사건에 비해 그 중요성이 덜하다.

### 3.2 각안별 타당성 검토

위에서 본 각안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다.

#### (1) 선부서 설치(음력 1월)

역사상 의의는 좋으나 계절적으로 겨울이므로 바다 행사가 불가하다.

〈표 3〉 해방후 해양관련 주요사건

일	자	내	용	비	고
1945.	9. 15	조선 해운 동맹 결성		해	운
1945.	11. 5	진해 고등상선 학교 설립		〃	
1946.	6. 15	해안 경비대 창설		해	군
1947.	1. 30	진해 고등상선학교를 진해해양대학으로 개편, 인천해양대학과 합병하여 국립해양대학으로 개칭		해	운
1947.	4. 12	극동 해운 주식회사 설립		〃	
1947.	5. 5	국립해양대학 군산으로 이전		〃	
1948.	1. 1	목포 상선학교 설립		〃	
1948.	9. 9	부산항 도선사조합 설립		〃	
1949.	2. 28	김천호(건국후 최초의 무여전) 홍콩으로 출항		〃	
1949.	6. 29	여수, 마산항 개항		〃	
1949.	11. 1	해군본부 작전국에 수로과 설치		해	군
1950.	1. 1	대한 해운공사, 대한 조선공사 설립		해	운
1950.	2. 17	항만위원회 규정 제정		해	만
1951.	4.	대한 해운공사 소속 평안호, 원주호 대일 정기항로 취항		해	운
1951.	8. 4	최초의 조석 관측		수	산
1952.	1. 18	평화선 선포		정	부
1952.	4.	국립해양대학 군산에서 부산거제리로 이전		해	운
1952.	10. 21	극동 해운 소속 고려호 대미 항로 첫 취항		〃	
1953.	1. 9	대한 조선학회 설립		해운,수산,조선	
1953.	12.	해양 경찰대 창설		해	경
1954.	4. 17	고려 해운주식회사 설립		해	운
1954.	8. 4	대한 해원협회 설립		〃	
1955.	2. 17	해무청 설치(해운, 조선, 수산행정관장)		해운, 수산	
1955.	11. 25	국립해양대학 영도 신교사로 이전		해	운
1956.	11. 28	한미 우호 통상 및 항해조약 체결		정	부
1957.	2. 18	정부, 국제 수로국 규약 가입		〃	
1957.	11. 7	한미 우호통상 및 항해조약 발표		〃	
1960.	4. 16	한국해양대학에 대학원 설치		해	운
1961.	5. 29	한국 해원 양성소 설치		정	부
1961.	12. 6	항로 표시법, 도선법, 해난심판법 제정		〃	
1962.	6. 9	포항항 개항		해	운
1963.	9. 25	울산항, 충무항 개항		〃	
1963.	10. 10	수로국, 해군에서 교통부로 이관		해운, 교통	
1964.	12. 31	목포해양고등학교를 목포해양전문학교로 승격		해	운
1966.	8. 3	수로 업무법 개정		해운, 교통	
1967.	2. 28	해운 진흥법 제정		〃	
1967.	3. 30	항만법 제정		〃	
1968.	12. 14	대한 해운주식회사 설립		해운, 교통	
1971.	9. 21	한국 도선사 협회 설립		〃	
1972.	3. 23	현대 조선소 기공		조	선
1973.	5. 25	부산 항만 관리청 발족		조	선
1973.	10.	옥포 조선소 기공		조	선
1974.	1. 30	한일 대륙붕 협정 체결		정	부
1974.	6.	북평항 개발 착공		해	운
1975.	11. 15	한국해양대학 조도신교사준공, 이전 및 신조연습선 「한바다호」 명명		〃	

일 자	내 용	비 고
1976. 3. 13	항만청 발족	〃
1977. 7. 31	한국항해학회 설립	〃
1977. 12. 31	어선법 제정	〃
1978. 3. 27	국립 한국 선원학교 개교	〃
1978. 4. 30	12해리 영해 선포	정 부
1980. 4. 8	첫 국산 구축함 건조 진수	해 군
1982. 3. 29	한·중 정부간 해운회담 개최	해 운
1982. 9. 27	한국 해운학회 설립	〃
1985. 8. 30	한국항만학회 설립	항 만
1989. 3. 5	한국해양대학 항만연구소 창설	〃
1992. 3. 1	한국해양대학이 종합대학으로 승격하여 한국해양대학교가 됨	해 운

## (2) 놀지왕 동생 구출(음력 5. 15)

바다의 날 제정 취지에 미흡하다. 해안 안보, 무역, 수산, 개척 등 어느 분야에도 의미 부여가 곤란하다.

## (3) 장보고의 청해진 설치(5월)

통일신라시대에 동북아 해상권의 장악을 통한 해상 안보 및 한·일·중 3국간 무역의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계기로서 해양 안보, 무역 등 여러면에서 훌륭한 의미를 갖는 사건이다. 다만 일자가 명확히 지정되어 있지 않아 음력 4월로성양력 5월의 적절한 날을 선정할 경우 해상 행사가 용이한 시기가 될 수 있다. 단, 入水行事는 곤란한 것이다.

## (4) 한산대첩(8월 14일)

해상 안보측면에서는 좋은 의미를 갖으나 기타 분야에서 의의를 연결시키기 곤란하다. 또한 광복절과 인접하고 폭서기가 되어 폭넓은 참여가 곤란할 것으로 판단된다.

## (5) 옥포해전(6월 17일)

한산대첩 이상의 의미를 갖기 어렵다. 역시 안보측면에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으나 외침을 받은 어려운 상황에서 조심스럽게 얻은 첫 해전 승리는 '바다의 날' 제정이 요구하는 폭넓고 긍정적인 역사적 의미를 제공하지 못한다.

## (6) 부산항 개항(2월 26일)

일본에 의한 타율적 개항으로 제한적 의미를 가지며 계절적으로 바다 행사가 곤란한 날자이다.

## (7) 평화선 선언(1월 18일)

이는 당시 이승만 대통령에 의한 자주적 영해권 주장이었으나 국제법을 무시한 주장으로 외국의 인정을 받지 못한 선언으로 나중에 12해리 영해선언으로 그 효력이 없어졌다. 일자 또한 바다 행사가 불가능한 계절이다.

## (8) 조석관측(8월 4일)

바다를 활용키 위한 기초 해양조사의 시작으로 긍정적 의미를 가지나 해양관측의 제한적 의미밖에 없고, 오랜 해양 역사를 가진 우리 역사에서 해방 이후의 사건으로 '바다의 날'의 제정 근거를 삼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본다. 조석 관측은 우리 선조들이 수천년간 해오던 일로서 현대에 와서 새로이 한 일이 큰 의미를 갖기는 어렵다고 본다.

## 3.3 종합분석

'바다의 날'은 우리 역사에 있어서 바다를 지키고 적극적으로 이용한 기념할만한 사건과 관련하여 제정함이 바람직하다고 볼 때에 장보고 대사의 청해진 설립이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오래된 역사적 사건이다.

장보고 대사의 업적은 해상 안보 및 교역측면에서 한민족이 동북아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였던 위대한 일이었다. 하바드 대학 교수이지 주 일미국대사를 역임한 라이사워 교수는 'The Yenin's Travel to Tang China'라는 저서에서 장보고 대사를 일컬어 "마젤라, 콜럼버스에 앞서는 대

해상무역자"라고 격찬하였다.

이러한 민족사적 업적은 그간 도외시 되어 왔다가 최근 중앙대학교 중국연구소(소장 김성훈 박사)를 중심으로 산동반도 역사 기행 및 한글-한자 기념비 설립 등의 활발한 사료발굴 활동을 통하여 그 진면목이 알려지고 있다.

장 대사에 대한 일부 부정적 시각은 그가 우정(신무왕)을 도와 반란을 일으켜 우정을 왕위에 오르게 한 후에 장 대사의 세력에 불안을 느낀 문성왕이 보낸 자객 염장에게 살해된 사실에 기인한 것 같다. 이와 유사하게 이조 태조 이성계에 의해 살해당한 최영 장군과 충신 정몽주에 관해서 우리가 오히려 그 정신을 추앙하고 있는 바처럼, 우리의 해양력을 키우고 바다를 통해 국력을 키워던 장 대사의 위업은 비열한 방법으로 그를 살해한 당시의 부패한 신라 왕실의 조치와 무관하게 추앙되고 기념되어야 당연할 것이다. 만일 우리가 장 대사의 업적에 부정적 시각을 견지한다면 두번이나 백의 종군을 명 받았던 이순신 제독에 대해서도 거북스럽게 생각할 것이다. 우리는 민족의 해양사에 빛나는 업적을 남긴 장 대사나 충무공이나 같이 추앙하고 그 뜻을 기려야 당연하다.

다만, 청해진 설립의 정확한 일자가 알려지지 않았으므로 당시 음력 4월을 양력으로 환산한 5월중 적절한 날을 바다의 날로 선정함이 바람직하다. 5월은 입수는 곤란하지만 계절적으로 온화하여 항구별로 각종 행사를 치르기에 적절한 때이다.

#### 4. 일자 선정 및 행사

'바다의 날'을 5월중으로 선정함에 있어서 5월의 전반부에는 '부처님 오신 날'(음 4. 8), '어린이 날'(5. 5일), '어버이 날'(5. 8일) 등의 기념일 및 공휴일이 집중되어 있고 중반부에는 '스승의 날'(5. 15일)이 있으므로 후반부인 기억하기 쉬운 5월 20일을 선정함이 좋을 것 같다.

참고로 5월중 평년의 기상자료는 <표 4>와 같다.

<표 4> 5월중 평균 기상

시 기	기온(℃)	강수량(mm)	습도(%)
5월 상순	15.5	31.2	63
중순	17.0	23.2	64
하순	18.7	33.9	66
5월 20일	17.9	1.3	66

5월 20일에 대한 대체안은 대부분 미국의 공휴일과 같은 개념으로 5월 4째주 월요일을 '바다의 날'로 선정하고 그 한주간을 '바다의 주간'으로 삼아 대도시 및 항구 지역별로 민관군이 통합으로 대대적 기념행사를 전개함이 바람직하다.

행사의 내용으로서는 일본의 경우는 참고하여 볼 때에 홍보행사와 해상 스포츠 행사로 나누어 다채롭게, 그리고

- '미스 해양' 선발대회
- 군악연주 해군 의장대 시범, 해군사관학교 공개분열행사 및 해양인 시가 퍼레이드
- 해양관계 박물관, 과학관, 수목 전시관 등 무료 공개
- 바다를 주제로 한 노래자랑대회
- 각종 홍보용 의류, 엽서, 개인용품 등 제작 판매

지역별 특성을 살려 전개할 수 있겠다. 다음은 몇가지 행사안이다.

##### (1) 홍보행사

- 강연회, 학술세미나, 발표회 등 해양학술행사
- 웅변대회, 글짓기 대회, 사진대회 등의 문예행사
- '바다의 날' 기념식, 청해진, 제승당 등 해양 사적지 참재 등 기념행사
- TV, 라디오, 잡지 등의 메스컴 홍보활동

##### (2) 해상/수상해상

- 거북선 항해
- 해군/해경 합정 개방/시승
- 수영대회, 보트대회, 카누, 윗트대회 등 해양스포츠 경연대회
- 모형 합선 경영대회
- 해군 특전 수상 시범
- 해상 전적지 순례 프로그램

- 바다 청결 캠페인
- (3) 기타행사
  - 해상 안전지도, 옷트, 카누 등 강습회, 실내 수영 강습회

## 5. 결 론

우리나라는 오랜 해양활동의 전통에도 불구하고 바닷사람들이 민관군 통합으로 기념할 만한 날이 없었다. 역사적으로 고찰해 본 결과 통일신라시대에 장보고 대사가 청해진을 설립하여 동북아 해역의 해상권을 장악한 일을 높이 기리고 그 뜻을 이어 받기 위하여 청해진을 설립한 5월중

편리한 날(5월 20일 또는 5월 넷째 월요일)을 ‘바다의 날’로서 선정할 것을 건의한다. 현행 해운의 날과 항구별 풍어제 등의 행사는 새로 제정된 ‘바다의 날’에 통합 흡수하고 다채로운 홍보 및 기념행사와 해상활동 등으로 바닷사람들의 해양 기상을 살리고 국민의 해양사상을 고취시켜 선조의 뜻을 이어받아 아시아 뿐 아니라 전 세계를 잇는 5대양을 주름잡는 해양민족으로 융성하는 꿈을 육성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바다의 날’ 제정, 그리고 행사 전개를 위하여 해운항만청, 수산청, 해군, 해경 등의 정부 단체 뿐 아니라 해운, 수산, 조선, 해양과학/연구단체, 각종 교육기관 등이 단결하여 협력해야 할 것이다.